



"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"

뜻: 한번 뱉은 말은 활로 쏜 화살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, 말하기 전에 항상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말 · 신중 · 책임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살	은	↓	쏘	고	↓	주	워	도			
말	은	↓	하	고	↓	못	↓	줍	는	다	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살	은	↓	쏘	고	↓	주	워	도			
말	은	↓	하	고	↓	못	↓	줍	는	다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ㅅㅇ][ㅅㄱ][ㅈㅇㄷ][ㄹㅇ][ㅎㄱ][ㄹ][ㅈㄴㄷ]

웹에서 보기

